

나주혁신도시 1호 커플 한국현·최윤정 부부 전남서 첫 휴가

혁신도시가 맺어준 천생연분 “잘 살게요”

나주 혁신도시가 낳은 1호 커플이 무더운 여름을 뒤로하고 혁신도시 현장을 찾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기획부 과장 한국현(37)씨, 나주시청 주무관 최윤정(여·33)씨 부부. 이들은 나주 혁신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었다.

4년 전인 지난 2009년 ‘혁신도시 이주기관과 나주시 기관 단체와의 만남’ 행사에서 첫 인연을 맺은 후 올 3월 결혼에 골인했기 때문이다. 이 행사는 지난 2008년부터 6회째 이어져 135쌍이 참여했지만 워딩 마지막에 성공한 것은 이들이 유일하다.

이후 한씨 부부는 보금자리를 나주에 마련하고 신혼생활에 들어갔다.

“사실 맞선 프로그램에서 지금의 부인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 주저했고, 이후 연락을 못하다가 지난해 이전기관과 나주지역 기관의 체육대회를 앞두고 전화를 걸었는데, 그것이 주효했습니다.”

한씨는 직장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진하는 내년 초까지 서울을 오가야한다. 결혼하게 되자 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들 부부를 배려해서 회사가 이전할 때까지 혁신도시 현장 파견근무를 검토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인 최씨는 외롭지 않다. 예쁜 공주가 이미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 28주째로, 아마도 한씨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 세상에 나와 부부와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씨 부부의 직장 동료와 주변인들은 회사가 이전하는 시기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에서도 혁신도시가 맺어준 천생연분이라며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이 한씨의 전언이다.

한씨는 “첫 눈에 반해 마음에 두고 있



지난 28일 나주 혁신도시 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사현장 앞에 선 한씨 부부.

연말쯤 살립 합치고 2세 탄생 임박 ‘겸경사’

“지역 정착위한 현실적 혜택 없어 아쉬움”

었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 정말 반려자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계속해 그런지 결혼해서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2·3호 커플의 탄생을 바랐다. 그녀는 “믿을만한 직장을 갖고 있고 같은 지역에 근무한다는 장점도 있으니 맞선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하루빨리 혁신 2호, 3호 커플들이 탄생해 혁신커플 모임을 결성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부부는 ‘혁신도시 커플’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전 기관 직원들과 나주지역 공공기관 직원들이 스스럼 없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 커플 성공 시 세금이나 주거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한씨 부부는 “올 여름 휴가를 받아 임자도와 청산도를 찾았지만 내년에는 아이 때문에 어떻게 지낼 지 모르겠다”며 “혁신도시로 맺은 인연인 만큼 다른 커플보다 모범적으로 더 잘 살겠다”고 입을 모았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전두환 차남 설립회사’ 웨어밸리 압수수색

쑈 비자금 유입 의심… 재용씨 두 아들이 대주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9일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이 설립했던 데이터베이스 보안업체 웨어밸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N빌딩 6층에 있는 이 회사의 사무실과 서초구 사

무실 등 2곳으로 수사진을 보내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사 압수도 관련 자료, 내부 결재 문서 등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웨어밸리는 재용씨가 설립한 뒤 전 대통령 비자금 관리인 중 한명으로 알려진 손삼수 씨가 인수한 회사이다.

검찰은 재용씨의 두 아들이 웨어밸리의 대주주인데다 재용씨가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돈으로 이 회사를 세운 뒤 2002년 말 증가한 점을 토대로 비자금이 유입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전씨의 돈을 관리했던 재용씨의 측근 류창희 씨가 2003년 8~10월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손씨가 2003년 10월에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지방신문협회 임시총회… 주요 현안·협력방안 논의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송광석·경인일보 사장)는 29일 대전일보사 1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주요 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정충건 경남신문 회장, 김영송 광주일보 사장, 이희종 강원일보 사장, 송광석 경인일보 사장, 남상헌 대전일보 사장, 여창환 매일신문 사장, 서창준 전북일보 회장, 김진환 부산일보 상무.

/대전일보=장길만 기자

구명환 하나에 의지… 100km 표류 끝 구조된 선원

여수서 실종 8시간만에 대마도 근해서 발견… 해경 “비교적 건강”

여수 앞바다에서 실종된 40대 선원이 구명환 하나에 의지해 일본 대마도 근해까지 무려 100km가량 표류하다가 일본 어선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29일 부산해경과 여수해경에 따르면 부산 선적 96.6t급 저인망 어선 ‘T호’ 선원 김모(40·부산시)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50분께 대마도 서쪽 17.5km 해상에서 표류하던 중 일본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김씨는 같은 날 새벽 3시20분께 여수시 삼산면 백도 남동쪽 30.9km 해상에서 실종됐었다. 당시 김씨는 조업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실종 직후 구명환을 붙잡고 대한해협을 98.2km 가량 표류하던 중 일본 어선에 발견돼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어선은 김씨를 대마도로 데려갔고, 일본

해상보안청이 부산해경에 인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부산해경은 3000t급 경비함을 보내 이날 오후 7시50분께 부산 사하구 묵도 남쪽 45.1km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타고 온 김씨를 인계받았다.

조류를 감안하면, 김씨는 여수 동암·하백도 인근 해상을 거쳐 일본 대마도까지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무사히 부산항에 도착한 김씨는 부산 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특별한 외상이 없고 비교적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김씨가 탔던 T호가 부산항에 입항하는 대로 김씨를 포함한 선장·선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해경은 특히 김씨가 T호에서 실종되면서 구명환을 낚아채 간 것인지, 아니면 표류 중 우연

■ 여수 실종 선원 표류 추정도



히 구명환을 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방침이다.

해경은 또 김씨가 실종 장소에서 대마도 인근 해상까지 100km 가량 표류한 이동 경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구명환에 의존했기는 하지만 바다에서 무려 100km나 표류하다가 구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며 “김씨가 퇴원하면 정확한 사고·구조 경위 등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실종신고를 접수받은 여수해양경찰은 이날 관할인 부산해경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국립과학관 채용심사 대폭 강화

심사위원단이 직접 응시자 접수 매겨… 광주과학관도 적용

국립대구과학관 채용비리로 사회 문제가 된 국립과학관법인의 채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단이 직접 응시자의 접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해 최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을 강화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대구과학관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직원채용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심사위원 선정의 기반이 되는 인력풀(PPOOL) 규모를 많게는 1000명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풀단은 과학 관련 협회 인사 등 과학관 운영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또 채용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단의 규모도 현행 ‘6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확대한다.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미래부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금리는 은행만큼!

담보대출 - 한도 25억원

- * 상가대출
- * 아파트대출
- * 원·투룸, 나대지 대출
- * 임대 전세보증금 대출
- * 차량대출
- * 기타대출

신 용 / 정책자금대출

-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2,000만원 한도
- * 자영업자 햇살론 - 2,000만원 한도
- * 자영업자 신용대출 · 일일상환 대출

- * 직장인 햇살론 - 1,000만원 한도
- * 직장인 신용대출 · 마이너스 대출

낮은금리로 원하는 대출을 필요하신 만큼! 친절환 상담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 본 점 | 공동 예술의거리 010-3603-7981
| 금호지점 | 금호지구대 옆 010-4948-2882
| 풍암지점 | 신암초등학교 앞 010-3642-6142

2013년 2학기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7기)	광주교육대학교(8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3. 9. 6(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3. 9. 7(토) 09:10 (중급반)	·월, 목 야간반: 2013. 9. 2(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3. 9. 5(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3. 9. 7(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3. 7. 25(목) ~ 9. 7(토)	2013. 7. 25(목) ~ 9. 7(토)
수업기간	2013. 9. 6(금)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 9. 2(월)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 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간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현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등급·시험) 취득 기회 부여	·1,2단계간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현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등급·시험) 취득 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계림동 ●

대한생명 ●

구. 한미소방 ●

동부소방서 ●

고객 주차장

북경당 한의원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 휴진, 공휴일은 오전 진료

진료문의 062)227-7575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증-26%호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① 연수일정(2013년 제11기)

- 개강일시 : 2013. 9. 2(월) 기초오후 14:00 기초야간 18:30 심화오후 14:00 심화야간 18:3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3. 8. 1(목) ~ 2013. 8. 31(토)
- 수업기간 : 2013. 9. 2(월) ~ 2013. 12. 20(금) (총 90시간)
- 수 강 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오후반 : 30명 기초야간반 : 30명 심화오후반 : 30명 심화야간반 : 30명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하고, 기초반 수료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심화반 편입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후반 : 14:00~17:00 야간반 : 18:30~21:00

● 수료 후 특전

- 1,2단계(기초, 심화) 연수과정 수료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 ① (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 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②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 일 공휴일 휴무)

- 전화 (062) 530-3873 ~ 3876
- 담당교수 :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e.go.kr